



소말리아 근해 해상강도, 호화유람선까지 공격

로켓포, 수류탄, 기관총으로 중무장, 대책마련 시급



그동안 해상강도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선박은 속력이 느린 바지선이나, 일반화물선이었으나, 최근에는 속력이 빠르고 대응력이 뛰어난 호화유람선까지 중무장한 해상강도들로부터 공격을 당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해적들로부터 피격을 받은 선박은 지난 11월5일 아프리카 동쪽 끝 소말리아반도 근해를 향해 중이던 미국 마이애미 소재 씨본크루즈사의 호화유람선 '씨본 스피릿'(Seabourn Spirit)호.

이날 새벽, 로켓포 수류탄과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해상강도들이 일제사격을 가하면서 유람선 승선을 시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적들은 유람선에 오르는데 실패했고 유람선은 전속력을 내어 해적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 와중에 유람선 승무원 중 한명이 파편에 부상을 입었으나, 151명의 승객 전원은 무사했으며 선박도 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뿐,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승객들은 일부 호주와 유럽인들을 빼고 대부분 미국인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은 카니발(Carnival)크루즈의 자회사인

씨본(Seabourn)크루즈사의 유람선으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하여 케냐의 몸바카를 향해 가던 중이었다.

승객 중 한 사람인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의 은퇴 의사 찰스 서플(78)이 항해중인 배에서 새크라멘토의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당시 사태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메일에 의하면, 사고당시 "선박의 우측에 '비우호적인' 선박이 나타났으니 승객들은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있으라"는 선장의 긴박한 안내방송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전달됐다. 객실안에서도 선박의 오른쪽으로부터 총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태가 급박함을 알 수 있었다.

서플씨는 카메라를 재빨리 집어 들고 선실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린 순간, 그는 자기를 향해 로켓발사기를 조준하고 있는 해적을 볼 수 있었다. 아차 하며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고 곧 쿵 소리가 들렸다. 서플씨는 "그땠 꼭 나에게 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나중에 보니 로켓포는 위층에 있는 객실을 때렸다.

4, 5명씩 25피트 길이의 배 두대에 나누어 탄 해적들은 계속 총을 난사하며 유람선에 오르려 했다. 선장은 다시 "안전을 위해 모든 승객들은 배의 중앙에 있는 실내 라운지로 모이랴"고 명령하는 한편, 배를 해적선에 부딪치며 항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길을 뚫고 나아갔다.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내달기 시작했다.

몇 시간처럼 느껴졌던 10여분이 지나고 이윽고 해적선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다. 유람선은 유

리창이 여러 군데 깨어지고 로켓이 명중한 곳에는 검은 폭발구멍이 생겼으나 그 이상의 큰 피해는 없었다.

시애틀에서 온 에디스 래어드도 딸과 같이 유람선으로 해적들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나는 유람선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 선장이 전속력으로 배를 몰았다"고 BBC에 보낸 이메일에서 말했다.

이 회사 소속의 배가 해적공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행히 선원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훈련이 되어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강제로 배에 오르려할 때 이를 저지하는 훈련 등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사전에 받았다는 것.

"스벤-에릭 페터슨선장을 비롯한 151명의 승무원들이 상황에 정말 모두 훌륭하게 대처했다"고 씨본크루즈사의 부르스 굿 대변인은 <올랜도 센티넬>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국제유람선협회 마이클 크라이에 회장도 승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했으나 "하지만 애초에 해적이 총격으로 배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회가 기피해역을 정하고 유람선들로 하여금 이를 피해 다니도록 한 조치가 옳았음을 다시 확인했으나 이번에 일이 벌어진 해안 70마일까지의 지점은 이제껏 해적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여겨져 왔었다"며 인도양의 항해 지침을 다시 정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소말리아 인근 해역은 최근 해적이 창궐하는 지역으로 금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15건의 해적 출몰이 있었다. 이들은 화물선을 공격하여 물건을 빼앗고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6월에는 쓰나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935톤의

쌀을 싣고 소말리아로 가던 유엔의 전세 화물선을 나포하고 선원들을 3개월간이나 억류했던 사건도 있었다. 이번 사건이 있기 바로 이틀 전 세계식량기구는 소말리아지역에 원조식량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해적들에 대비한 무장호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원조를 줄여야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해운협력기구의 앤드류 므왕구라 케냐 지부장은 "소말리아 해안은 해양무역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지만 유람선을 공격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인구 700만명의 소말리아는 반정부 지도자들이 1991년에 독재자인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축출한 이래 무장한 호호세력들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려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다.

한편, 소말리아의 해적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현안의 하나로 부각되자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폐막된 제24차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이 결의에서 IMO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장 강도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IMO 결의는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에게 넘겨져 유엔 내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유엔 차원에서 해적 퇴치를 위한 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O는 이 결의에서 각국 정부에 대해 인근 국가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말리아 임시 연방 정부에 대해서도 소말리아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을 이용한 해적 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